

TV 상담 프로그램 올 봄 방영 예정

(주)제일영상의 <TV 카운셀러...>, 실제 상담·취재·드라마치료법 도입

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올 봄 TV 방영을 위해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독립제작사가 자체 기획·제작해 방송사에 판매하는 '파일럿'형식의 이 프로그램은 독립프로덕션인 (주)제일영상의 <TV 카운셀러 이제서 말하자>.

김용수, 정영아, 한지수 연출

팀이 6개월의 제작기간을 걸쳐 완성한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성폭행을 비롯해 전화폭력, 주부매춘, 매맞는 남성 등 사회 문제 중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상담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복합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성폭행 당한 여성의 삶을 그린 연극

<로젤>에 출연한 바 있는 연극 배우 김지숙의 사회로 진행되며, 실제 사례자가 직접 출연하여 전문 상담자와의 상담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을 추적 취재해 보도하고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으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도 전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영애 소장, 강원룡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중걸 변호사 등이다.

총 4편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특히 어린이 성폭행 문제를 다룬 제1편 '도와주세요, 엄마'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연극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탤런트 출신의 홍유진 씨의 '드라마 치료법'이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도되고 있다.

홍 씨는 12세 때 이웃집 아저씨로부터 성폭행당해 실어증과 대인 기피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적인 방법'이나 '투사기법 (피해자에 최면을 걸어 전의식 상태로 만든 다음, 당시 사건을 연상시킬 만한 소품 등을 이용해 사건을 재현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어린이에 내재돼 있는 분노감, 혐오감, 수치심 등을 밖으로 표출해 내도록 유도한다.

성폭행 피해자 치료의 첫단계는 억눌려 있는 모든 감정들을 행동을 통해 발산하는 것.

이 드라마 치료법을 담당했던 홍 씨는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린이가 원한다면 무료로 계속 치료를 해주고



◇ 이번 다큐멘터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연극배우 김지숙, 강원룡 신경정신과 전문의,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좌로부터)

싶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속에서 실제 사례자들과 상담을 통해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영애 소장은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발생 당시 충분히 치료되지 않으면 사춘기 '순결교육'을 받으면서 정신분열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어린이 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부모와 사회의 그릇된 편견 등이 극복돼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바람직한 기획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제일영상 측은 어린이 성폭행을 다룬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각종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전화폭력', 3편에서는 소비항락 문화의 극대화 경향과 가정에서의 소외감 등으로 매춘행위를 하는 '주부매춘', 4편에서는 가부장의 권위가 박탈되면서 느끼는 남편들의 소외감을 다룬 '매맞는 남편'을 제작할 예정이다.

<남미경 기자>